

# 실험하는 예술 소극장 운동



**2019. 7. 26.(금) ~ 8. 3.(토) 어울아트센터 오봉홀**

- ◆ 주최/주관 : (재)행복북구문화재단 /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어울아트센터
- ◆ 기획담당 : 이현정 PD 053)320-5125 / 010-6538-3457  
우성하 PD 053)320-5129 / 010-2822-6167
- ◆ 홍보담당 : 이주현 PD 053)320- 5128/ 010-2627-3744



## 1. 공연개요

- 1) 공연명 : 실험하는 예술 <소극장 운동>
- 2) 일 시 : 2019. 7. 26.(금) ~ 8. 3.(토)
- 3) 장 소 : 어울 아트센터 오봉홀 (116석/ 북구 구암로 47)
- 4) 주최/주관 : (재)행복북구문화재단 / (재)행복북구문화재단어울아트센터
- 5) 세부 프로그램

퍼포먼스 아트	해설이 있는 퍼포먼스 아트 “무경계 실험예술 옴니버스”	7. 26.(금) 19:30 7. 27.(토) 16:00
음악_현대	김무섭 온매체 : Total media 작곡발표회	7. 29.(월) 19:30
음악_전통	오랜된 시간, 숙성된 소리 ‘산조’	7. 30.(화) 19:30
음악	미술과 시, 음악과의 대화	8. 1.(목) 19:30
댄스	웹_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8. 3.(토) 16:00 8. 3.(토) 19:00

- 6) 입장료 : 전석 1만원
- 7) 관람등급 : 8세 이상 (Total media 발표회의 경우 작품 특성상 임신부 출입 제한)
- 8) 할인내역
  - 패키지할인 : 5작품 패키지 30%할인 (50,000원->35,000원)
  - 20%할인 : 리플릿 소지자, 센터 회원, 기획공연 티켓소지자, 카카오플러스친구 할인, 페이코 할인, 예술인(예술인패스 카드소지자)
  - 25%할인 : DIMF 공연티켓 소지자
  - 30%할인 : 학생할인 (대학생 까지), 단체할인(20인 이상, 전화예매 053-320-5120)
  - 50%할인 :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 9) 예 매 : 티켓링크 1577-7890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행복북구문화재단 053-320-5120 [www.hbcf.or.kr](http://www.hbcf.or.kr)



## 2. 기획의도

**관객에게는 예상치 못한 실험예술과의 만남을!**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실험하는 예술 <소극장 운동>!!,  
소극장운동이란 원래 대극장의 상업주의 연극에 반대하여 소극장  
중심으로 반기성·반상업을 목표로하는 연극운동의 기초로  
어울아트센터에서는 소극장운동을 연극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 전반에 적용하여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고자 한다.

7월 26일에서 8월 3일 까지 5개 작품,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그간 접하지 못한 형태의 예술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0석 남짓한 블랙박스 형태의 극장인 어울아트센터 오봉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도를 통해 퍼포먼스아트, 현대·전통 음악,  
컨템포러리 댄스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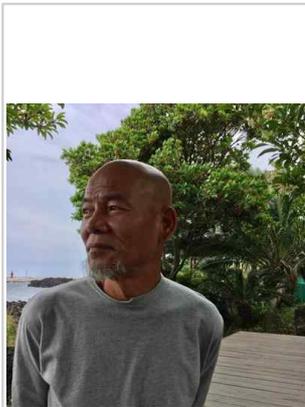
### 3. 세부프로그램

#### [Series01] 해설이 있는 퍼포먼스 아트 <무경계 실험예술 유니버스>

해설이 있는 퍼포먼스 아트 <무경계 실험예술 유니버스>	
	+ 장 르 : 음악_현대
	+ 일 시 : 2019. 7.26. (금) 19:30 / 7.27(토) 16:00
	+ 장 소 : 어울아트센터 오봉홀
	+ 입장연령 : 8세 이상
	+ 티켓가격 : 1만원
	+ 소요시간 : 80분
	+ 출 연 : 퍼포머_김백기, 퍼포머_온몸컴퍼니(강성국, 양길호), 퍼포머_조은성, 해설_이정희,
+ 프로그램	
<p>3명의 퍼포머가 3개의 실험적인 작품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선보이며, 일반 관객들에게 생소한 낯설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막과 막 사이에 작품에 대한 해설이 곁들여지는 공연이다. 해설은 퍼포먼스 아트의 역사나 특징, 다양한 형식, 작가의 작품철학 등을 이야기하며 관객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작품이 끝난 뒤에는 작가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되어 있다.</p>	
<p>- 8분의 1평 (김백기) 오로지 8분의 1평 공간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의 파노라마.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수많은 인간, 동물, 식물들과 거미줄 같은 관계를 맺어가지만 결국 8분의 1평 남짓한 무덤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몸부림에 불과한지, 삶과 죽음에 대해 음미해보는 이미지 퍼포먼스</p>	
<p>- 핏줄 (온몸컴퍼니) 장애와 비장애인의 우애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숙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형제간의 우애를 춤으로 담아낸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몸과 몸이 만나 서로 다른 소통방식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작품으로 장애라는 외형적인 형태가 아닌 인간이 갖는 근원적인 정서와 본질을 형제라는 작품의 주제와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예술로 구현하고 있다.</p>	
<p>-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 (조은성) 사람의 감정을 읽고 느끼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함축적이고, 감각적이며 직관적인가. 때론 얼마나 무모한가. 감정의 거울인 표정은 어떠한가? 보이기에 보여지는 것들과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한 집중과 실험.</p>	



+ 출연진 프로필



**김백기**

- 실험예술가(퍼포먼스 아트), 퍼포먼스 연출가
-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 대표
- 2014-2018 복합문화공간 서귀포문화뿔데리총전소 대표
- 2002-2013 한국실험예술제 예술감독
- 2014-2018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예술감독
- 2017-2019 제주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2017. 고흥우주항공축제 공연프로그램 구성 및 총연출
- 2017. 중문 칠선녀축제 주제공연 총연출
- 2017. 퍼포먼스극 “꽃이 떨어질 때, 그때” 출연
- 2017. 16회 제주국제실험예술제(JIEAF) 예술감독 외 870 여회 이상 공연, 연출, 기획, 예술감독



**온몸컴퍼니**

- 2018.8 안동행위미술제 '몸시'공연
- 2018. 8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핏줄' 공연
- 2018. 5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공연
- 2017 Together residence in Berlin
- 2017 빅토리아 ROMP! festival of dance <Brother>
- 2016 대만 Sixth sense 페스티벌 초청 공연 <Keep going, intermezzo>
- 2015 모스크바 초청 공연 및 워크숍
- 2014 베를린 Cokaseki 초청 공연 및 워크숍 <Keep going>
- 2014 뉴욕 한국문화원 초청공연 오픈스테이지 <brother> 등 다수



**조은성**

- 탈무브먼트 대표
- 국가무형문화제 제34호 강령탈춤 전승자
- 2019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
- 포항 굉장하다광장하다 퍼포먼스 <주황텐트> 포항 꿈틀로
- 나다페스티벌 그룹 Tabula rasa 퍼포먼스 <Circle> 춘천 상상마당
- 문화가 있는 날 퍼포먼스 <봄> 용인 이영미술관
- 4.16 세월호추모공연 《노란꽃씨, 다섯번째 이야기》 기획 및 퍼포먼스 부산 MERGE갤러리
- 이정우 개인전 축하 퍼포먼스 <보인다, 봄> 인사동 단디갤러리
- 20190118 유혹의 역사 in 전주 퍼포먼스 <거품> 전주 팔복예술공장 등 다수



## [Series02] 김무섭 온매체 : Total media 작곡 발표회

김무섭 온매체 : Total media 작곡 발표회	
	+ 장 르 : 음악_현대
	+ 일 시 : 2019. 7.29. (월) 19:30
	+ 장 소 : 어울아트센터 오봉홀
	+ 입장연령 : 8세 이상 (*임산부 관람 불가)
	+ 티켓가격 : 1만원
	+ 소요시간 : 60분
	+ 출 연 : 작곡_김무섭, 피아노_박재민, AudioMulch_류재민, 퍼포머_김도희
+ 프로그램	
<p>전통적 방식의 전자음악과 기존의 악기와 전자음향이 결합된 실시간전자음악 그리고 전자음향과 그림, 연극, 영상이 결합된 소리영상으로 표현된 작품들을 소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050606” fuer eine Stimme und Komputer 하나의 음원과 하나의 스피커를 위한 공간작업</li> <li>2. 영상과 전자음향을 위한 “빛의 사물놀이” 우제길 화가의 미술작품을 영상작업 후 전자음향과 결합</li> <li>3. 피아노와 실시간전자음향을 위한 “멈추지 않는 눈물” 기존의 악기와 실시간 전자음향 작업에 의한 실시간전자음악(박영심 할머니를 추모하며)</li> <li>4. 퍼포머와 영상 그리고 전자음향을 위한 “분노” 이 작품은 원래 소리와 영상 그리고 연극 등 다양한 예술장르로 구성된 실험영화이다. 그중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소리영상으로 표현했다.</li> </ol>	
+ 작곡가 프로필	
	<p>작곡가 김 무 섭 은 대구 출신이며 계명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사사; 김창재, 이춘길) 하였고 이후 독일 에센 폴크방 음대에서 작곡과정을 수료하고(사사; 니콜라우스 아 후버)디플롬 과정을 독일 라이프찌히 음대 (사사;디미트리 테르자키스)에서 졸업하고 최고 과정인 콘체르트-엑자멘 과정을(사사; 프리트헬름 뵐) 독일 뤼벡 음대에서 졸업했다. 그의 작품들은 전통과 실험적 창작의 경계에 있다.</p>



## [Series03] 오래된 시간, 숙성된 소리 <산조>

오래된 시간, 숙성된 소리 <산조>	
	+ 장 르 : 음악_전통
	+ 일 시 : 2019. 7.30. (화) 19:30
	+ 장 소 : 어울아트센터 오봉홀
	+ 입장연령 : 8세 이상
	+ 티켓가격 : 1만원
	소요시간 : 70분
	+ 출 연 : 최병길의 소리무리 (장구_최병길, 가야금_이은미, 대금_장보황)
+ 프로그램	
<p>한국 전통음악의 백미로 꼽히는 산조를 원형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오랜 시간 숙성된 맛, 흥, 멋, 한이 담긴 소리를 이은미의 가야금, 장보황의 대금 그리고 최병길의 장구반주로 풀어낸다.</p> <p>-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슬프고 애타는 느낌의 산조로 인간이 가장 슬플 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음을 듣고자 전국의 초상집을 찾아다녔으며, 자진모리는 개구리의 울음소리, 휘모리는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새소리, 세산조시는 말발굽 소리를 들어 산조 한바탕을 구성하였다. 강태홍류 산조는 다른 산조와 달리 전 바탕이 우주 중심으로 경조, 강산제, 계면조로 구성되었고 계면조이되 애절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p> <p>- 이생강류 대금산조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아하고 장쾌한 진양장단, 담담한 중모리장단, 경쾌하고 흥겨운 가락의 중중모리장단, 곳곳하며 기세등등한 선율로 시작하여 슬픈 가락으로 변화를 주고 다시 담담하게 가락을 끌며 마치는 자진모리장단까지 4가지 장단으로 대금산조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p>	
+ 출연진 프로필	
최병길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이은미	경북도립국악단 수석연주자 역임
장보황	경북도립국악단 수석연주자



## [Series04] 미술과 시, 음악과의 대화

미술과 시, 음악과의 대화	
	+ 장 르 : 음악
	+ 일 시 : 2019. 8.1. (목) 19:30
	+ 장 소 : 어울아트센터 오봉홀
	+ 입장연령 : 8세 이상
	+ 티켓가격 : 1만원
	+ 소요시간 : 60분
	+ 출 연 : 작곡_최명훈, 생황_김효영, 플루트_이현주, 타악기_심선민
+ 프로그램	
<p>고전 소설 “심청전”부터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 Friedrich Hölldelrin(프리드리히 힐덜린)의 “시”, 상징주의 화가 Gustav Klimt(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생명나무”, 작가불명의 곡인 “가사”와 작자미상의 “작품들”, Edvard Munch(에드워드 뭉크)의 “비명”까지 작품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로 초대한다.</p>	
<p>- 고전 소설 “심청전” 과의 대화 영상음악 심청 작가 미상의 고전 소설 “심청전”을 모티브로 영상작가 서계숙(대전대학교 교수)와 함께 영상 음악을 작업하였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벌어지는 수중 세계의 이야기를 다양한 음색과 영상으로 감상하시길 바란다.</p>	
<p>- Friedrich Hölldelrin과의 대화 독일 후기 낭만주의 시인 중 손에 꼽히는 Friedrich Hölldelrin의 마지막 시 “AN ZIMMERN”을 음악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p>	
<p>- Gustav Klimt와의 대화 생황 독주 오스트리아의 화가 Gustav Klimt의 생명나무를 음악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대지위에 우뚝 서 있는 나무의 장엄함과 끝없이 퍼져가는 인간의 집착과 탐욕이 느껴지는 이 그림의 소리적인 울림에 귀 기울여본다.</p>	
<p>- 플루트 독주 “가사” 가사는 정확히 언제 발생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특이한 발성법의 성악곡이다. 현재 12곡이 전해오는데, 그 중 백구사, 권주가, 매화가를 재해석했다.</p>	
<p>- 이름 없는 작가와의 대화 생황 독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여러 작품들을 생황을 음색으로 재해석하였다.</p>	
<p>- Edvard Munch와의 대화 타악기 독주 Edvard Munch의 “비명”이라는 작품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는 대화의 단절, 고립 등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느꼈고, 그들의 절규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p>	



+ 출연진 프로필



**최명훈**

-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박사
- 중앙일보 제21회 중앙음악 콩쿠르 작곡부분 1위(병역특례)
- 안익태 작곡상 작곡대상(역대 최연소)
-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전(全)독일 음악대학 콩쿠르 작곡부분 1위
- 일본 타케후 국제 작곡상
- 현. 국립 군산대학교 교수



**김효영**

- 국립국악고 졸업
- 추계예술대학교 및 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2014 파리 시떼 레지던시 선정
- 2015 KBS국악대상 관악부분 수상
- 현 숙명여대 대학원 객원교수, 서울교대 출강



**심선민**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대학원 및 동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제5회 폴란드 국제현대음악콩쿠르 솔로부문 1위 및 전체부문 대상 수상(한국인최초) 등 다수 국제콩쿠르 우승 및 국내외 다수 공연, 마스터클래스
- 현. 강원대학교 교수, 서울모던앙상블 리더



**이현주**

- 미국 맨하탄음대 석사학위
- 미국 예일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
- 미국 워싱턴대학교 박사학위
- 제6회 장피에르 랑팔 콩쿨입상
- 현. 군산대학교 음악과 교수 (플루트 전공)



[Series05] **웬\_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웬_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 장 르 : <b>댄스</b>				
	+ 일 시 : 2019. 8.3. (토) 16:00 / 19:00				
	+ 장 소 : 어울아트센터 오봉홀				
	+ 입장연령 : 8세 이상				
	+ 티켓가격 : 1만원				
	+ 소요시간 : 60분				
	+출 연 : Strange Dance Company (무용수_이상훈, 김가민, 나혜민, 이석빈, 이정민 퍼커션_변성환)				
<p>+ 프로그램</p> <p>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그저 세상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몸을 통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p> <p>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낙오될까 두려워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의 힘을 발견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잃어간다.</p> <p>내가 누구인지 어떤 꿈이 있는지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p> <p>“모두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 자신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레오 톨스토이-</p>					
<p>+ 작곡가 프로필</p> <table border="1">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안무</b> 이상훈                 </td> <td>                     - 2016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 대구예술발전소 7기 입주작가                      - Belgium Eastman Company Babel / Puzzle Main Dancer                      - Denmark Mute-Comp “The Stricke of no Thought” Main Dancer                      - Strange Dance Company 10<sup>th</sup>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안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음악</b> 변성환                 </td> <td>                     - 2019 Strange Dance Company 10<sup>th</sup>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출연                      - 2018 웬홀_Damian 음악 감독                      - 2017 밴드 카노 퍼커션 녹음                      - 2017 밴드 아프리카 4집 앨범 퍼커션 녹음 참여                      - 2017 대구 음악 창작소 옴니버스앨범 녹음 참여                 </td> </tr> </tbody> </table>		<b>안무</b> 이상훈	- 2016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 대구예술발전소 7기 입주작가 - Belgium Eastman Company Babel / Puzzle Main Dancer - Denmark Mute-Comp “The Stricke of no Thought” Main Dancer - Strange Dance Company 10 <sup>th</sup>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안무	<b>음악</b> 변성환	- 2019 Strange Dance Company 10 <sup>th</sup>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출연 - 2018 웬홀_Damian 음악 감독 - 2017 밴드 카노 퍼커션 녹음 - 2017 밴드 아프리카 4집 앨범 퍼커션 녹음 참여 - 2017 대구 음악 창작소 옴니버스앨범 녹음 참여
<b>안무</b> 이상훈	- 2016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 대구예술발전소 7기 입주작가 - Belgium Eastman Company Babel / Puzzle Main Dancer - Denmark Mute-Comp “The Stricke of no Thought” Main Dancer - Strange Dance Company 10 <sup>th</sup>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안무				
<b>음악</b> 변성환	- 2019 Strange Dance Company 10 <sup>th</sup>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출연 - 2018 웬홀_Damian 음악 감독 - 2017 밴드 카노 퍼커션 녹음 - 2017 밴드 아프리카 4집 앨범 퍼커션 녹음 참여 - 2017 대구 음악 창작소 옴니버스앨범 녹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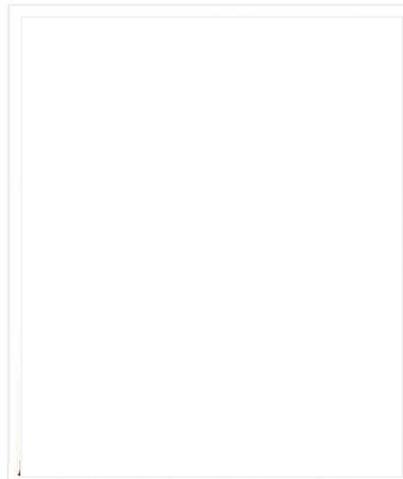


**문화** [문화산책]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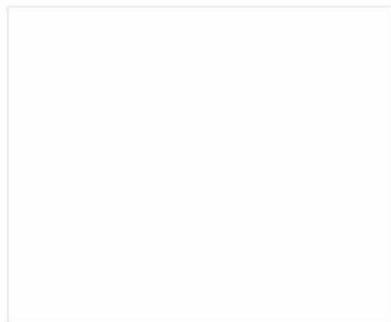
칼럼

f t g+ n+ 기사새보내기 인쇄

뉴미디어부기자 2019-02-27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이현정<어울아트센터 공연기획담당>



2019년도 벌써 두달이 흘렀다. 지난해 1월 현재 직장에 입사해 공연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공공극장의 역할 그리고 우리 극장에 맞는 기획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울아트센터는 북구 구암로 47에 위치해 있다. 대구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금호강을 중심으로 강북에 위치해 원도심에서 분리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인지 올해 20주년을 맞는 공연장이지만 아직 어울아트센터를 잘 모르거나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대구시민도 많은 듯하다.

대구의 다른 극장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도 작은 편이고 가용예산도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도심에 위치한 것도 아니니 타 극장과 차별화된 우리 극장만의 색깔을 가져야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도하게 된 것이 바로 소극장운동이다.

이번 공연은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그간 접하지 못한 형태의 예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원래 소극장운동은 연극에서 나온 용어로 대극장 중심의 상업주의 연극에 반대하여 소극장을 중심으로 반기성·반상업 연극을 펼쳐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연극의 소극장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 극장에서는 댄스, 퍼

포먼스, 현대 음악으로 장르를 확대하여 실험적이고 반기성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소극장운동을 7월 말에 일주일간, 100석 규모의 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소극장운동에 참여할 예술가 중 한명은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예술세계보다는 관객이 좋아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한 적도 있었다며 매너리즘에 빠질 뻔한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명은 보수적인 도시 대구의 공공극장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그래, 어쩌면 이번 기획 자체가 실험일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자들이 트렌드를 만들어가야 예술가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적 시도가 있어야 예술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극장에서 관객이 쉽게 좋아할 만한 공연만 선보이는 것은 관객의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빼앗는 일일 수도 있다. 관객이 편식 없이 문화를 즐기고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게 하는 것도 기획자의 의무라 생각한다. 첫 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지만 항상 그랬듯 관객은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7월 공연을 준비해 본다.

이현정<어울아트센터 공연기획담당>